

DU-도전학기 결과보고서

과제명	옛 수도로 본 문화유산 교육: 경주와 교토		
참여자	성명	소속	학번
	이	역사교육과	
지도교수 의견	<p>역사교육과의 공부에 단순히 교원임용시험 준비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폭넓은 고민과 과업 도출, 또한 그에 따른 역량의 함양과 경험의 축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한다. 답사와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학생의 진지한 고민과 성실성이 돋보였고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한 학기 동안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면서도 동시에 도전학기 과제 수행에도 충실하였던 점에 높은 평가를 내리고 싶다.</p> <p>(소속) 역사교육과 (성명) 신주현 (서명 또는 날인)</p>		

1. 도전 과제 내용

가. 답사

- 1) 사전에 관련 책,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적인 내용 공부
- 2) 교토, 경주 지역 각각 답사

나.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제작

- 1) 사전에 관련 책,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적인 내용 공부
- 2) 이론적인 내용과 답사내용을 종합하여 교토와 경주와 관련한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구상.

학생참여를 위주로 구상하며 프로그램 교육대상, 교육목표, 교육방법, 교육내용 등을 계획한 후 진행. 교토와 경주의 역사에 대한 강의와 함께 주요 문화유산들을 소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체험 활동 구상. 이미지, 지도, 도표 등을 활용하여 생생한 학습 경험을 제공.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및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직접 전문가와 소통하고 질문할 수 있는 상호작용 기회 제공.

4) 가상 박물관 제작

: 가상현실을 활용한 비대면 박물관으로, 더 많은 이에게 문화유산을 알리고 교육할 수 있음. 사이트 형식으로 제작하여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하거나 가상 팸플릿 내에 QR 코드로 삽입 가능. 내부 사진은 답사에서 찍은 사진들로 구성. 이는 디지털 학습자원을 활용한 것으로 학생들이 실제 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함.

다. 팸플릿 제작

: 박물관 전시를 가상으로 기획함. 전시유물, 전시내용, 관람동선 등 내용 구상 후 실제 팸플릿 제작. 가상 박물관을 제작하여 가상 관람으로 이어지도록 함. 팸플릿을 배포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양국의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보전하는데 도움이 됨.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교류에 기여.

2. 도전 과제 수행 결과 및 성과

1. 경주시 일대 답사를 완료하였으며,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음. 결과물 제작에 필요한 내용, 사진 자료 및 도록 수집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 답사를 통해 관광지로서의 문화유산의 활용을 발견하게 되었음. 답사 보고서를 통해 답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음.
2. 독서 및 경주시 답사를 통해 온라인 전시기획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음.
3. 경주 관련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였음.
4. 온라인 가상 전시 제작을 완료함.
5. 가상 박물관 전시 도록 제작 및 배포를 완료함.
6. 전시 도록과 보고서를 인쇄하여 묶었고, 지도교수님께 전달함.

3. 자기 평가

팀이 아닌 개인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사교육과 특성상 교직 과목이나 사학 이론 과목 중심으로 개설되는데 ‘학예사’에 초점을 맞춘 전시 기획과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도전하기를 통해 평소 연구하고 싶었던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뿐 마음으로 활동했다. 전문 강사나 학예사님 섭외에 어려움을 겪어 만날 수 없었던 점이나 시간의 제약으로 더 질 높은 결과물을 제작하지 못한 것이 아쉽게 다가온다. 이번 경험을 발판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나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내 꿈을 이루고 싶다.

4. 최종 결과물

목차

- I. 경주 관련 사전조사 내용
- II. 경주 답사 보고서
 - i. 국립경주박물관과 경주 월성
 - ii. 첨성대와 황리단길
 - iii. 대릉원(천마총, 황남대총)
 - iv. 동궁과 월지
 - v. 현지인 인터뷰
- III.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 IV. 가상 박물관 온라인 전시
- V. 가상 박물관 리플렛(최종결과물)

I. 경주 관련 사전조사 내용

경주는 일본 교토에 버금가는 천년 고도로, 천년 제국 신라의 화려한 수도였다. 신라는 동아시아 최대의 교역 도시로 서역 상인이 드나드는 등 상주인구가 1백만 명을 넘나드는 동방의 황금도시로 명성을 누렸다.¹⁾ 2000년에는 ‘경주역사유적지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었다. 경주역사유적지구에는 조각, 탑, 신라의 대가람이었던 황룡사터, 사지, 신라의 궁궐터인 월성지, 신라의 능묘들이 밀집된 대릉원, 왕릉, 산성, 동궁과 월지, 국립경주박물관을 비롯해 신라 시대의 여러 뛰어난 불교 유적과 생활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들 유적을 통해 신라 고유의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다. 등재 기준으로는 ‘경주역사유적지구에는 불교건축 및 생활 문화와 관련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이 다수 분포해 있다.’는 점, ‘신라 왕실의 역사는 1,000년에 이르며, 남산을 비롯해 수도 경주와 그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은 신라 문화의 탁월함을 보여 준다.’는 점이 있다. 경주역사유적지구의 5개 지구는 각기 다른 종류의 유산이 원래의 위치에 남아있어 진정성이 높으며, 건축, 조각, 탑, 왕릉, 산성은 모두 그 원형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사지 또는 궁궐지의 경우에는 그 터만이 남아 있으며 건물의 원래 배치를 보존하기 위해 기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경주역사유적지구 안의 많은 국가유산들이 국가유산보호법에 의거 보존 관리되고 있다. 또한 국가유산 및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은 법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건설 행위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의무화되어 있다. 또한 매장유산이 풍부한

1) 서명수, 천년의 기억 우리들의 경주, 서고, 2023, p.12.

지역 특성상, 경주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토목, 건축 행위에는 국가유산 영향 검토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러한 관리 덕분인지 경주역사유적지구의 보존 관리 상태는 매우 좋다고 평가 받고 있다. 현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이민족의 침략과 국가의 흥망 등으로 많은 주요 건축물이 쇠락하고 파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²⁾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이고 신라 땅을 ‘불국정토’라 칭하며 호국불교의 특징을 띠었다. 탑을 세우고 석굴암을 조성하고 문무대왕이 죽어서도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바다에 묻어 달라 한 것이 그 일례다.³⁾

왕릉은 죽을 왕을 추모하는 공간이자 산 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간이다. 왕릉은 왕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로 조성되었다. 왕릉은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경주 왕릉은 닫힌 공간이 아니다. 구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다. 대부분은 담장도 없다. 경주의 신라시개 왕릉급 고분은 1,850기에 이른다. 도심은 물론 바다, 산까지 경주 전역에 분포한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이처럼 많은 왕릉을 갖고 있는 도시는 없다.⁴⁾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을 경주로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던 곳이 바로 동궁이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는 전성기에 성 안에 초가집 한 채 없고, 노랫소리와 피리 부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였고 밤낮으로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⁵⁾

옛 경주. 즉, 서라벌의 중심은 궁성인 ‘월성’이었다. 궁궐의 지형이 초승달처럼 생겨 월성이라 불리었다. 그러나 월성은 몽골의 침략으로 대부분의 목조 건물이 소실되어 현재 발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⁶⁾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다. 그녀는 황룡사에 9층 목탑을 건립하고,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인 첨성대를 쌓아 올려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30cm 높이의 돌 362개로 27단을 쌓아 만든 첨성대는 춘추추분과 동지 등의 24절기를 관측했다.⁷⁾

고분 공원 지구. 즉, 대릉원은 세 개의 왕실 무덤들로 이루어져 있다. 고분에는 자갈로 덮인 이중 목관이 안치되어 있다. 풍부한 금제 부장품, 유리, 질 좋은 도자기들이 발굴되었으며, 천마총에서는 자작나무 껍질에 날개 달린 말을 그린 말다래 천마도(天馬圖)가 발굴되어 그 이름의 기원이 되었다.⁸⁾ 대릉원 고분군은 미추왕릉을 조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릉원’이라는 이름은 <삼국사기>에 ‘대릉에 장사를 지냈다’는 기록에 따른 것이다. 황남대총과 천마총의 주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두 고분 모두 금관과 많은 부장품들이 출토되면서 왕의 무덤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누구의 무덤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황남대총은 특이하게 표주박 모양으로, 이름 그대로 아주 큰 무덤이다. 봉분이 높은 남분은 남성 부장품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왕의 무덤으로, 낮은 북분은 여성 부장품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된다.⁹⁾ 경주 시내의 큰 무덤들은 4세기 중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만들어졌다. 돌무지덧널무덤이라 부르는 무덤으로서, 나무를 이용해 방처럼 네모난 공간인 덧널을 만들어 그 안에 부장품을 넣고, 덧널의 둘레와 위에 돌무지를 쌓아 올린 뒤 흙으로 덮은 구조이다. 황남대총, 천마총, 금관총 등은 모두 이와 같은 구조의 무덤들이다. 8세기에 편찬된 <일본서기>는 신라를 ‘눈부신 금과 은, 채색이 많은 나라’로 기록하였다. 황금은 신라의 성장기인 마립간 시대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마립간은 금관, 금허리띠,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착용했다. 신라에서 언제부터 금을 사용했고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¹⁰⁾ 경주의 왕릉에서 다양한 관제장식이 출토되었다.

II. 경주 답사 보고서

답사 경로:

대구대학교 -> 시외버스 이용 -> 경주시외버스터미널 -> 시내버스 -> 국립경주박물관 -> 카페 -> 도보 -> 월성 발굴지 -> 첨성대 -> 황리단길 -> 대릉원 -> 저녁식사 -> 도보 -> 동궁과월지 -> 시내버스 -> 경주시외버스터미널 -> 시외버스 이용 -> 대구대학교

2) 유네스코와 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s://heritage.unesco.or.kr/%EA%B2%BD%EC%A3%BC%EC%97%AD%EC%82%AC%EC%9C%A0%EC%A0%81%EC%A7%80%EA%B5%AC/>

3) 서명수, 같은 책, pp. 30-31.

4) 서명수, 같은 책, p. 35.

5) 서명수, 같은 책, p. 44.

6) 서명수, 같은 책, pp. 45-47.

7) 서명수, 같은 책, pp. 5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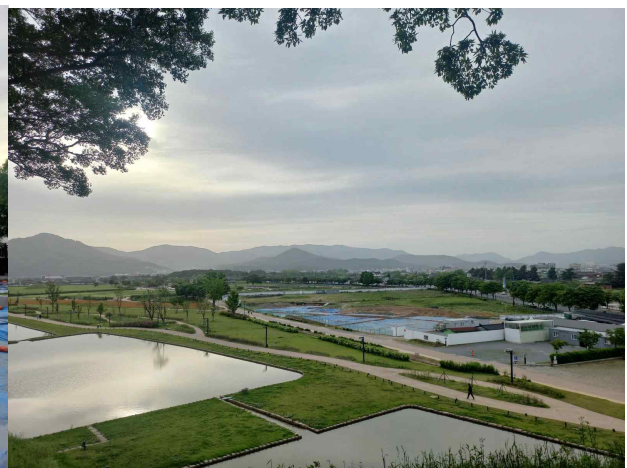
8) 유네스코와 유산, 경주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https://heritage.unesco.or.kr/%EA%B2%BD%EC%A3%BC%EC%97%AD%EC%82%AC%EC%9C%A0%EC%A0%81%EC%A7%80%EA%B5%AC/>

9) 서명수, 같은 책, pp. 143-148.

10)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 국립경주박물관, 통천문화사, 2016.

i. 국립경주박물관과 경주 월성



[순서대로 경주국립박물관 금관총 금관, 경주국립박물관 성덕대왕신종, 박물관 기념품, 수어, 점자, 음성 제공 서비스, 카페 메뉴, 월성 발굴지, 월성 해자]

1. 국립경주박물관: 가상박물관 제작을 위한 박물관 전시 구성 파악 및 전시유물 정보 수집 목적,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퀴즈 제작에 필요한 국립박물관 도록 습득 목적으로 방문하였다. 방문하여 실물 전시 도록을 얻을 수 있었다. 전시 해설 프로그램, 도슨트 서비스, 미디어아트, ‘모두를 위한 박물관’ -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으로 장애인을 위한 수어, 전자, 음성 제공 서비스, 손으로 만져보며 느낄 수 있는 유물, 문화유산 활용 상품 등과 같은 각종 아이디어와 더불어 다양한 유물을 관람하고 공부할 수 있었다. 8세기에 편찬된 <일본서기>는 신라를 ‘눈부신 금과 은, 채색이 많은 나라’로 기록하였다. 황금은 신라의 성장기인 마립간 시대에 집중적으로 사용되었다. 마립간은 금관, 금허리띠, 금반지, 금목걸이 등을 착용했다. 신라에서 언제부터 금을 사용했고 어디에서 구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경주의 왕릉에서 다양한 금제 장식이 출토되어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다. 그중 단연 눈에 띄는 금관총 금관은 관테 위에 3개의 맞가지 모양 세움 장식과 2개의 엇가지 모양 세움장식을 덧붙인 전형적인 신라 금관이다. 관테에는 아래위 가장자리에 송곳 같은 도구로 찍어낸 2줄의 줄무늬와 1줄의 파도무늬가 있다. 가운데에는 둥근 불룩장식을 줄지어 표현하고 곱은 옥과 달개를 달았다. 세움장식 중 맞가지 모양은 줄기가 넓고 크며 끝가지가 작은편으로 고식의 특징을 보여준다.¹¹⁾

2. 카페: 방문한 카페는 국립경주박물관 내에 위치한 카페로 본 지점에서만 판매하는 신라의 미소(얼굴무늬 수막새) 마들렌과 월지차를 볼 수 있었다. 마들렌과 월지차는 쭈, 흑임자, 대추, 꽃 등 자연친화적이고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한 일종의 관광상품이었다. 외국인들이 다과를 즐기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3. 월성 발굴지: 답사 일이 주말이었던 관계로 발굴지 설명을 들을 수 없었지만 국립경주문화유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해설 프로그램 ‘월성이랑’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월성지구 근처는 삐뚤삐뚤하게 굽은 소나무 길이 경주를 신비하게 감싸고 있었는데 굽은 소나무는 경주의 상징이라고 한다. 옛 경주. 즉, 서라벌의 중심은 궁성인 ‘월성’이었다. 궁궐의 지형이 초승달처럼 생겨 월성이라 불리었다. 그러나 월성은 몽골의 침략으로 대부분의 목조 건물이 소실되어 현재 발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¹²⁾ 현재는 월성 근처의 해자만 복원되어 있었다.

ii. 첨성대와 황리단길



[순서대로 첨성대, 황리단길 입구]

1. 첨성대: 가장 유명한 국가유산인 첨성대를 방문함으로써 인해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

11)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 국립경주박물관, 통천문화사, 2016.

12) 서명수, 같은 책, pp. 45-47.

었다.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이다. 그녀는 황룡사에 9층 목탑을 건립하고,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인 첨성대를 쌓아 올려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천문 관측 기구인 첨성대가 높고 인적이 드문 산지에 있는 것이 아닌 변화가 광장에 있었음에 그녀의 목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30cm 높이의 돌 362개로 27단을 쌓아 만든 첨성대는 춘하추분과 동지 등의 24절기를 관측했다.¹³⁾ 현재는 첨성대 주변에 꽃밭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많은 관광객들과 경주시민들이 모여 산책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 경주시는 비단벌레와 신라문화를 활용한 비단 열차를 운영하는 등 전통과 현대 관광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2. 황리단길은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거리로, 특히 젊은 인구가 많이 찾는 곳이다. 전통가옥의 모습을 살린 상점들과 식당들이 거리를 이루고 있었다. 동굴과 월지에서 발굴된 주령구를 본따 만든 구조물도 찾아볼 수 있었다.

iii. 대릉원(미추왕릉, 천마총, 황남대총)



[순서대로 미추왕릉, 천마총 전시관 입구, 황남대총]

대릉원: 미추왕릉, 천마총, 황남대총 관람 및 사진 자료 습득 목적으로 방문했다. 왕릉은 죽을 왕을 추모하는 공간이자 산 자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공간이다. 왕릉은 왕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경주 왕릉은 닫힌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 돋보였다.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며, 대부분은 담장도 없다. 경주의 신라시대 왕릉급 고분은 1,850기에 이르며, 도심은 물론 바다, 산까지 경주 전역에 분포한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이처럼 많은 왕릉을 갖고 있는 도시는 없다.¹⁴⁾ 이렇게 많은 옛 왕릉과 현대인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하고 있었다. 대릉원 고분군은 미추왕릉을 조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릉원’이라는 이름은 <삼국사기>에 ‘대릉에 장사를 지냈다’는 기록에 따른 것인데, 미추왕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주인이 밝혀졌으나 황남대총과 천마총의 주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두 고분 모두 금관과 많은 부장품들이 출토되면서 왕의 무덤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누구의 무덤인지는 특정할 수 없다. 황남대총은 특이하게 표주박 모양으로, 이름 그대로 아주 큰 무덤이다. 무덤이라고 하면 으스스한 느낌이 들기 마련인데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고, 오히려 큰 언덕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황남대총에서 봉분이 높은 남분은 남성 부장품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왕의 무덤으로, 낮은 북분은 여성 부장품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왕비의 무덤으로 추정된다.¹⁵⁾ 고분에는 자갈로 덮인 이중 목관이 안치되어 있다. 풍부한 금제 부장품, 유리, 질 좋은 도자기들이 발굴되었으며, 천마총에서는 자작나무 껍질에 날개 달린 말을 그린 말다래 천마도(天馬圖)가 발굴되어 그 이름의 기원이 되었다. 제98호분. 즉 황남대총은 한국 최대형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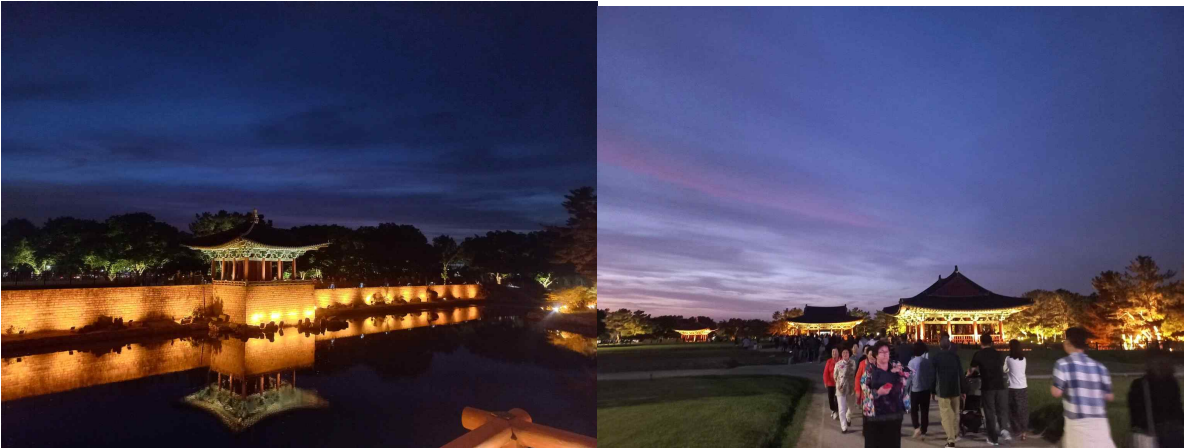
13) 서명수, 같은 책, pp. 54-58.

14) 서명수, 같은 책, p. 35.

15) 서명수, 같은 책, pp. 143-148.

이므로, 이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 고분보다 소형의 고분을 발굴하여 경험과 정보를 얻은 후, 황남대총을 본격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을 세워 제155호분. 즉 천마총을 먼저 발굴하게 되었다. 1973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조사단에 의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천마총도 대형에 속하는 고분이고, 당시까지 발굴조사된 고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거의 완형에 가까운 고분이어서 신라의 왕릉급 대형고분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제공하였다.¹⁶⁾ 답사에서는 천마총 내부와 미추왕릉, 황남대총의 외부를 관람했다. 특히 천마총 전시관 내에서 천마총의 발굴에 대해 세세하게 알 수 있었다. 경주 스탬프 모으기, 유네스코 스탬프 모으기, 국가유산 방문코스(전국 국가유산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관광 행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

iv. 동궁과 월지



[동궁과 월지 라이트 업. 늦은 시각임에도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동궁과 월지: 동궁과 월지는 원래 ‘안압지’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발굴조사 중 ‘월지’라 적힌 토기 조각이 발견되며 그 이름이 변경되었다.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을 경주로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던 곳이 바로 동궁이었다.¹⁷⁾ 근래 가장 인기 있는 경주의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가치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방문하였다. 동궁과 월지는 아름다운 야간 라이트 업 행사로 인터넷에서 유행 중인 장소이다. 늦은 시간에 찾아갔음에도 방문한 지역 중 사람이 가장 많이 몰려 있었으며, 신라인들의 음주 문화를 열볼 수 있는 주령구가 출토되기도 하는 등 그 역사적 의미가 크고, 아름다운 풍경에 눈을 땔 수 없었다. 그 아름다움에 마치 내가 신라 시대 야외 연회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나는 학예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도시 개발과 관련한 딜레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춘천 레고시티, 울산 반구대암각화 등 많은 곳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경제적 실리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는 가운데, 경주는 왕릉을 비롯한 많은 국가유산들이 경주 시민의 쉼터이자 일자리가 되어주고, 역사학, 고고학, 학예 학술 연구의 중심이자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며, 관광객을 모아 경제적 실리까지 얻고 있다. 또한 현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이민족의 침략과 국가의 흥망 등으로 많은 주요 건축물이 쇠락하고 파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경주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v. 현지인 인터뷰

인터뷰이: 현재 경주에 거주중인 대구대 역사교육과 2학년 황보수진 학생

16) 한국민족대백과사전, 천마총(天馬塚),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5857>.

17) 서명수, 같은 책, p. 44.

Q1. 경주의 문화유산들이 경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경제, 문화, 사회 등..)

A.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여행 산업이 발달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일자리가 매우 많다. 예시로 황리단길에 있다. 카페, 음식점, 한복 대여, 문화 상품 판매점 등 관광객을 위한 산업이 많이 발달했다. 그리고 황리단길에는 한옥 건물이 많은데 이렇게 전통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관광 요소가 되었다. 전통을 지키다 보니 경주에는 한옥 거주민도 많다. 특이하게 경주여고의 지붕이 기와로 지어져 한옥의 형태를 띄고 있다. 현지인으로서 경주의 주거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대한민국은 국가유산 법에 따라 문화유산 근처에 건물들을 지을 경우 특정 높이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경주는 문화유산이 많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짓기 어렵다. 또 법에 따르면 공사를 위해 땅을 파는 경우 발굴조사를 꼭 하게 되어 있고, 경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유물이 출토되어 공사가 지연된다. 그래서 경주에는 높은 아파트가 많이 없고, 지하철과 같은 지하 편의 시설을 짓기 쉽지 않다. 출토되는 유물이 많아 발굴 관련 산업과 일자리도 발달되어 있다.

Q2. 경주 시민으로서 경주 국가유산에 대한 생각은?

A. '문화유산이 없었다면 이렇게 발전되었을까?' 싶을 만큼 경주에게 있어서 문화유산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니 전통이 유지되고, 관광객 증가하여 경주 지역이 발전되고, 인프라가 좋아져 사람과 물자 유통이 활발해졌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서 돈을 소비하는 입장이 아니라, 경주에 사람들이 소비하러 오는 입장이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다. 경주 지역은 지진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었다. 관련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더 힘써야할 것 같다. 덧붙이자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경주는 아파트가 적고 주택이 많다. 아파트를 쉽게 짓지 못하다 보니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경주 시민 중 일부는 이런 점들에 대해 달갑지 않아 하기도 한다. 문화유산 자체에 대해서는 어렸을 때 부터 신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교육을 받고, 접하다 보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다. 경주 거주 학생들은 신라 관련 왕관 만들기, 다보탑 저금통 만들기, 왕릉 답사 등등 다양한 신라 역사 관련 교육을 받아왔다.

Q4. 당신이 생각하는 경주의 문제점은? (환경, 관광, 경제, 사회 등등)

A. 문화유산이 너무 많다. 지하철과 같은 현대적인 발전이 지연되고 거의 불가능한 점. 관광객이 많이 오면서 거주지역과 관광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관광객 소음, 쓰레기, 주차장 부족 현상등이 있다.

Q5. 경주를 주제로 한 박물관 전시,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내용을 소개했으면 좋겠나요?

A. 선덕여왕이나 김춘추 같은 유명 인물 외에도 위대하신 분들이 많다. 그분들의 업적에 대해 다루어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주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물이 나오고 있다. 경주에 오면 발굴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 이를 활용하여 발굴지 답사 프로그램이나 국가유산 발굴 자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기획된다면 좋을 것 같다.

Q6. 경주와 신라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신라'라는 국가는 생각보다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유물들에서 찾을 수 있는 금관제작 기술, 예술, 첨성대와 같은 천문, 과학 기술 등 탐구해 볼 지점이 많다. 또 현대의 경주는 우리나라 국가유산 산업과 연구의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복원기술은 매우 발전되어 있다. 터만 남아 있는 황룡사 9층 목탑을 구현해 낸다던가 기술적인 발전이 매우 진보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첨성대와 대릉원 등이 있는 중심지역도 좋지만, 문무대왕릉과 같이 외곽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Ⅲ. 경주 관련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교육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5학년~6학년), 중학생(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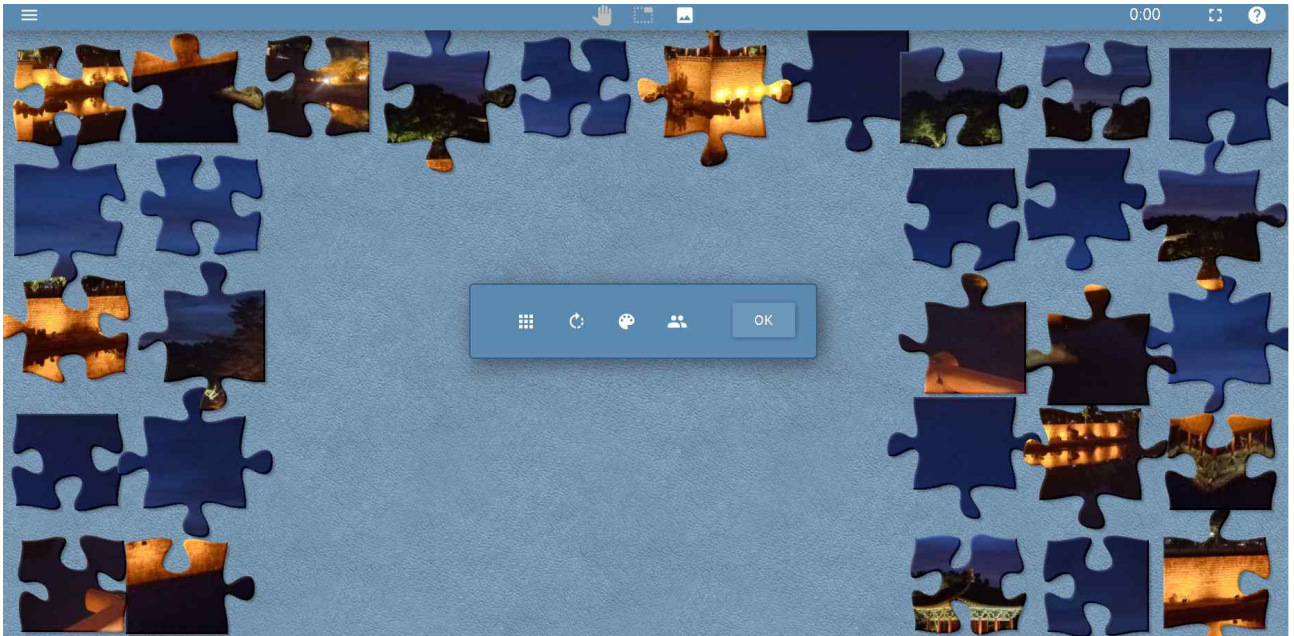
교육목표: 경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살펴본다. 신라의 역사와 인물에 대해 알 수 있다. 국가유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교육방법: 총 9차시로 기획. 경주의 역사에 대한 강의와 함께 주요 문화유산들을 소개. 그것을 바탕으로 한 창의, 흥미, 예술 활동 진행. 이미지, 지도, 도표 등을 활용하여 생생한 학습 경험을 제공.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및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직접 전문가와 소통하고 질문할 수 있는 상호작용 기회 제공.

교육내용

1차시: 신라와 경주의 역사 강의, 경주 역사문화 '동궁과 월지' 온라인 퍼즐

온라인 퍼즐 링크: <https://jigex.com/cvXd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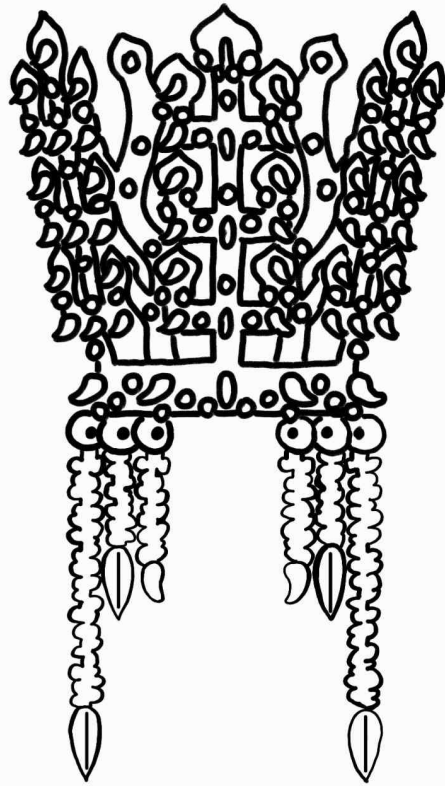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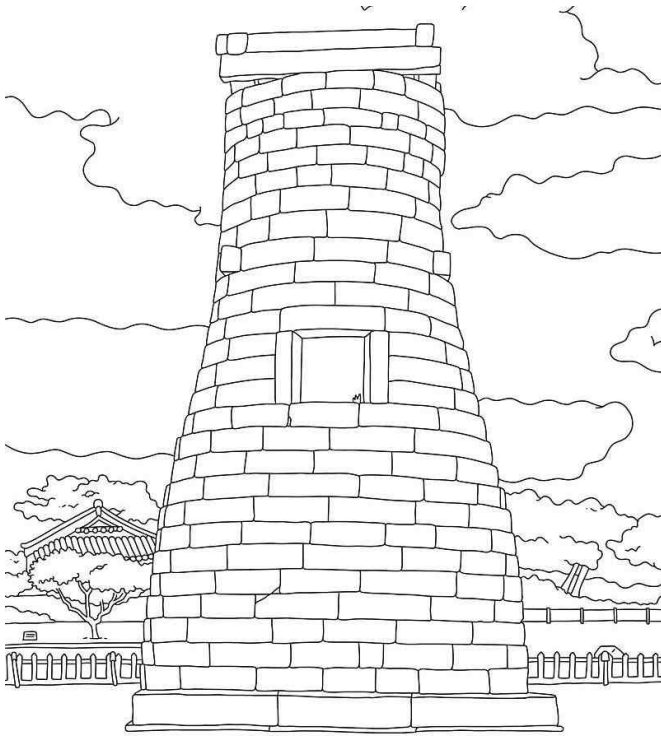
[퍼즐 게임 인게임 화면]

2차시: 신라의 인물들

선덕여왕, 김춘추, 진흥왕 등 인물 역할극으로 신라시대 역사적 인물 이해하기

3차시: 국가유산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하여 강의, 어린이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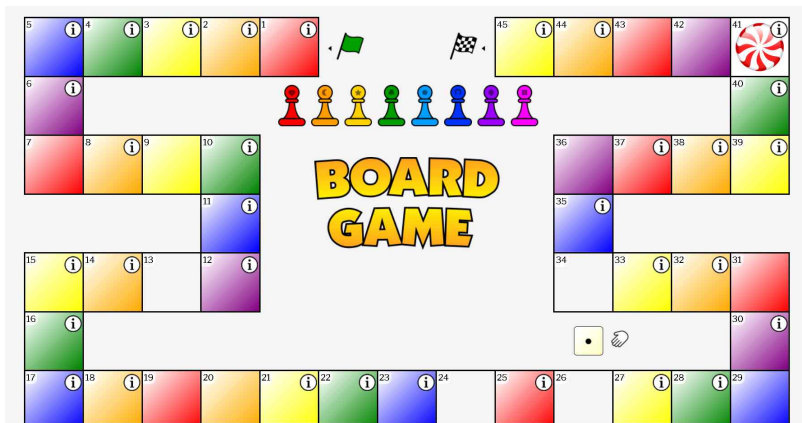
4차시: 경주의 문화유산 컬러링 북 색칠하기



[경주 첨성대와 신라 금관총 금관 컬러링 북 이미지]

5차시: 신라와 경주의 역사와 문화유산 온라인 보드게임
 온라인 보드게임 링크:

https://www.flippity.net/bg.php?k=1rkiSS0F3PMJWdz5wyCXop24C8_PybSMmCpqbx50Zf-Y





[신라 경주 문화유산 보드게임 인게임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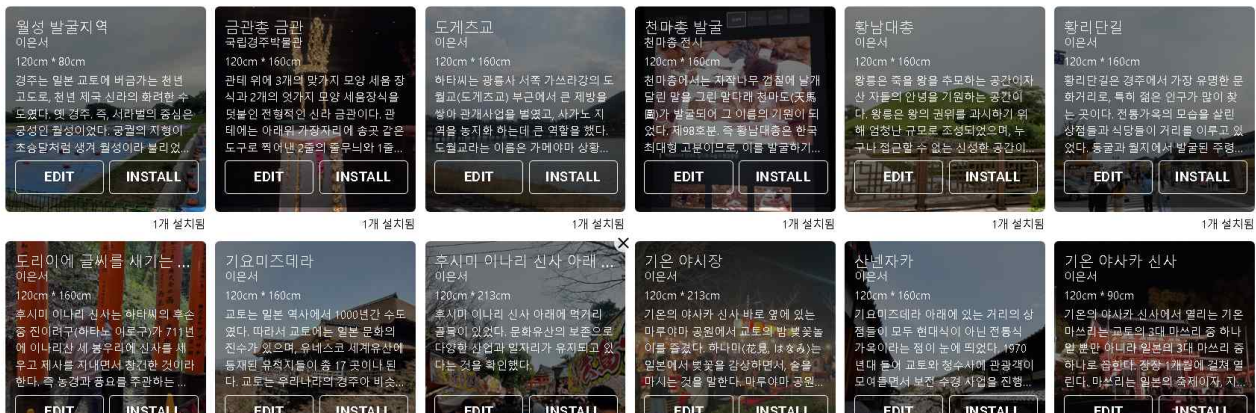
6차시: 전문가 초청 특별 강연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월성이랑'

7차시: 가상 박물관 관람 및 관람 소감문 쓰기

8차시: 경주 지도 그리기, 지도에 문화유산 표시 및 아이콘 그리기, 나만의 경주 지도 소개

9차시: 경주 답사 (국가유산 및 발굴조사 지역 탐방)

IV. 가상박물관 온라인 전시



온라인 전시 링크: <https://art.onthewall.io/7KM0pbqIlxA2Vd3iMJ1g>



[전시 QR코드]

V. 가상박물관 리플렛(최종결과물)

전시 소개
천년의 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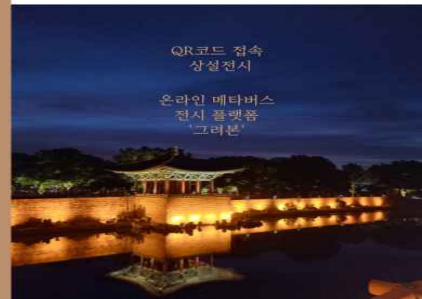
천년의 도시 경주와 교토.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의 갈등 속에서 굳건히 전통을 지키는 두 도시의 이야기. 실제 답사 사진을 담은 이번 전시는 문화유산의 가치와 활용을 엿볼 수 있는 온라인 박물관입니다.

문화유산
온라인
전시회
천년의 고도
경주와 교토

CONTACT
hidmstj12@naver.com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
이은서

2024-1 DU-도전학기
옛 수도로 본 문화유산 교육: 경주와 교토

문화유산
온라인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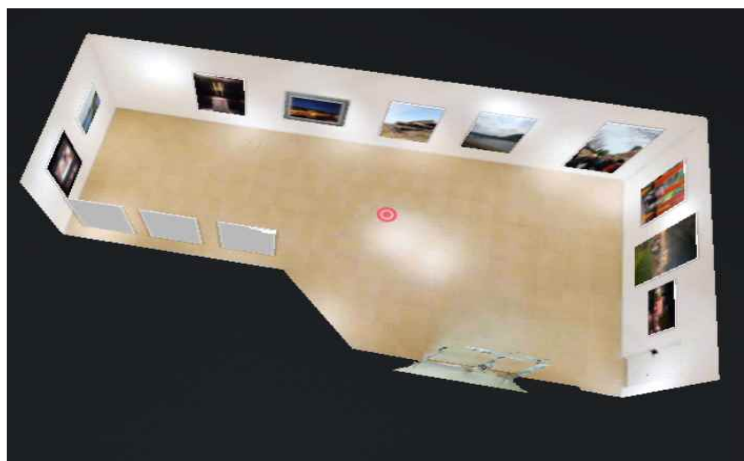


전시관람
QR코드



*PC 감상을
추천드립니다

전시 미리보기



• 문화유산 보존으로 일궈낸 경주, 교토의 현주소

+ 최종결과물은 인쇄 후 하나의 책으로 묶어 실물 제출 예정